# 젊은 대학, 미래의 대학
# 경성대학교

김 대 성
경성대 총장

## 1. 연혁과 현황

본 대학은 전쟁의 포연이 사라져가던 1955년 부산 지역 기독교계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신학박사 김길창 목사가 사랑과 봉사라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교육자의 양성을 위해 경남사범대숙을 설립, 개교한 것이 그 모체이다. 그 후 1963년에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지극히 열악했던 상황에서 부산·경남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여성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 한성여자실업대학으로 체제를 개편하여 4년제 대학으로 재개편될 때까지 5,800여 명의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배출하였다.

한국 사회가 급속한 산업화를 이룸으로써 산업 각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절실해지기 시작하던 1970년대 후반, 본교는 5개 학부 13개 학과의 편제를 갖춘 4년제의 부산산업대학으로 전환 개편되었다. 이어서 산업화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대학 발전에 대한 대·내외적 욕구도 분출하여 당시 대부분 단과대학들이 그랬듯이 본교도 종합대학으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종합대학교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시설 확장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결과, 1983년 9월 5개 단과대학 43개 학과의 부산산업대학교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종합대학으로의 출발과 함께 교명이 산업

분야의 특수대학 같은 느낌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교명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중 개방대학들의 교명이 산업대 내지는 공업대로 정해짐에 따라 1988년 공모를 거쳐 교명을 慶星大學校로 변경하였다. 교명 변경을 전후해서도 대학 발전의 노력은 부단히 계속되었다. 그 결과 본교는 1996년 현재 7개 단과대학 58개 학과, 5개 대학원 및 11개 부속기관과 17개 부설연구소의 편제를 갖추고 550여 명의 교직원과 1만여 명의 재학생이 일체가 되어 빛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교의 교육이념은 건학이념인 기독교적 사랑과 봉사를 바탕으로 하여 첫째로 진리를 추구하는 도덕적 지식인, 둘째로 자주성과 창의성을 가진 자유인, 셋째로 민족적 정체성을 갖되 배타적이지 않은 세계 속의 한국인, 넷째로 과학적 지식을 갖춘 기술인의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 아래 본교는 부산의 도심인 대연동에 10만 평, 외곽 지역인 만덕동에 20만 평의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문과대, 법정대, 상경대, 이과대, 약학대, 공과대, 예술대 등의 7개 단과대학 58개 학과(야간강좌 11개 학과 포함)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14개 학과, 석사과정 30개 학과 및 무역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정책정보대학원 등 4개의 특수대학원 편제를 갖추고 있다.

대학본부는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대학건설본부 등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밖에 교수와 연구 및 학생 생활을 돕기 위한 부속기구로서 50여만 권의 장서와 PC 검색대를 갖추고 있는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취업 정보와 학생 상담지도를 담당하는 학생생활정보센터, 가야 시대 등 각종 시기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3개의 대형 랩 실과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갖춘 시청각교육원, 교내 전산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는 전자계산소, 외국인 강사들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는 외국어연구원, 최첨단 과학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중앙정밀기기실 외에 출판부, 체육부, 대학신문사, 대학방송국 등이 있다.

특히 교내 수업과 각종 행사를 위한 부속시설 중 부산 지역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주 이용되는 콘서트 홀은 무대기기, 조명기기, 음향기기, 비디오 및 영상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 피아노, 오케스트라 연습장, 대도구실 등이 있어 각종 공연장으로 인기가 높다.

이 외에 부설연구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업개발연구소, 생산기술연구소, 향토문화연구소, 조류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 무역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종합식품연구소, 법학연구소, 현대미술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환경문제연구소, 교육연구소, 중국문제연구소, 일본문제연구소 등이 있다.

## 2. 교육목표 및 방향 : 정보화·국제화 사회의 실무인력 양성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 사회는 사회 전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에 싸여 있다.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화·국제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는데 대학이 이에 걸맞은 인재들을 길러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교는 이러한 교육 환경 변화를 인지

하고 미래 교육에 적응하기 위해서 1993년에 대학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구상단계, 집행계획단계, 실행단계라는 3단계의 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다. 그 중에서 1단계 계획으로 1994년에 완성된 대학발전계획 기본구상 편에는 우리 대학이 추구해 나가야 할 중점적인 교육목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목표들은 동시에 우리 대학의 몇 가지 특성있는 교육방향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첫째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인적 인격을 추구하는 민주화의 목표이다. 개인의 자발성, 창의성, 참여성을 보장하는 민주화의 이념은 대학 사회에서 이미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가든 간에 민주주의 시민교육은 앞으로의 참여민주주의 사회와 지방자치의 시대에 모든 대학인들에게 필수적인 기본적 교육목표가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주적 체제가 구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성원들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존중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방식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어려워져 가는 학내·외 여건 속에서도 기본교양 과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자유교양 과목들을 되도록 많이 개설하여 폭넓은 교양을 쌓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교육으로 우리 대학은 모든 학내 문제를 민주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고 있다. 엄격한 공채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교직원 충원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대학의 운영도 본부가 독선적으로 결정하고 지시하기보다 교수협의회, 직원 노조, 학생회 등과 항상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둘째는 현대 사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정보처리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정보화의 목표이다. 정보는 20세기가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따라서 다양한 정보처리 능력의 배양은 모든 부문의 교육에서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대학은 수년 전부터 정보교육, 특히 컴퓨터와 관련된 교육을 특별히 강조하여 전산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 모든 단과대에 50여 대 이상의 최신 기종 컴퓨터와 LAN 시설이 갖추어진 전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학과나 개별 교수, 직원들에게 컴퓨터가 지급되어 있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전산학개론 등의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고 있고 이공계 학생들은 이에 추가하여 포트란, C 언어 등의 교육도 받고 있다. 교내에 기본적인 전산망 구축이 끝난 올해 초부터는 교육학과, 사학과, 법학과 등을 중심으로 세 과목의 재택수업을 시작하여 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본교는 1985년에 전자계산소를 설치한 이래 학사 행정 업무에 대한 전산화 작업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산화 초기에는 미니 컴퓨터에 의한 중앙처리 환경방식과 기계 종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1992년부터 중소규모 워크 스테이션과 PC를 연결하는 분산환경과 기계 독립적인 상용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더욱 빠른 속도로 학사 행정 전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학적, 수강, 성적, 입시 등 기본업무에 대한 전산화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고 상담,

▲ 경성대는 발전 방향으로 교육중심대학을 표방하면서 질적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개발에 힘을 쏟는 희망찬 젊은 대학이다.

취업, 공고, 전자게시판 등 교내 전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는 지구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목표다. 교통·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세계적 규모에서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상호이해, 이문화간(異文化間) 교류는 21세기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학인은 세계의 대학, 연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고도로 정교한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문화에 관한 지식과 의사소통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외국어, 특히 영어회화 교육에 역점을 두고 각 단대마다 최신 장비의 어학실습실을 설치하여 미국인 교수가 담당하는 회화 수업을 1학년 전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인 교수의 확보가 필수적인 바, 학기별로 연차적 충원 계획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 교내의 적당한 곳에 외국인 숙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넷째는 관념적이고 이론 중심적 교육을 배제하고 실제 사회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지향하는 실용화의 목표이다. 점차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 다양한 정보를 새로운 지식의 체계로 통합하는 능력, 습득한 지식을 현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실용성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산학협동을 통해 지식의 적실성을 확인하고 실무교육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실용화의 목표에 부합되는 노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대학에서는 특히 상경대와 공과대를 중심으로 산학협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과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센터 설립과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공대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기업들과의 연계를 공고히 한 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인턴십을 교육과정으로 채택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실무교육 중심의 교과운영은 신문방송학과나 사회복지학과 등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학과 학생들이 실제 신문이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신문방송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실질적인 사회복지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의 발전 계획 등은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 3. 발전 방향 : 교육중심대학을 지향하며

본교는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지 4년만에 다시 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등 지난 10여 년 동안 학과, 학생, 교수 등의 양적인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도약하는 대학으로서 지역 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 정원을 억제해 온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 수용 능력의 한계, 인구 구성의 점진적 변화 예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양적 발전은 둔화되고 있으며, 대학 구성원들 스스로 양적 발전보다는 질적 내실화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는 욕구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의 대학 발전 정책의 기조에 대한 재검토를 불가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본교가 대학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입시 지원생들을 대상으로 본교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발전 가능성, 학교의 위치, 교수진, 학생들의 진취적 활동성, 예술 문화 육성 등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시설물 등 캠퍼스 조성, 면학 분위기, 취업률 등의 항목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교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출발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도시의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도시형 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학생들과 좋은 교수진이라는 이미지 위에 면학 분위기만 조성되면 국제화·정보화 같은 미래 지향적인 분야에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으며, 예술 문화의 중심이라는 이미지는 바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일정한 분야에서는 얼마든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나 앞의 교육목표, 그동안의 발전계획 등을 중심으로 본교의 발전 방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중심 대학으로의 발전이다. 현재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안에는 각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백화점식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예로 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 대학 등을 들고 있다. 연구중심 대학은 교육목표를 연구자의 양성과 연구업적의 강화에 두고 있는 체제인데, 연구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경우 학생의 대부분이 대학원 진학을 전제로 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에서는 효과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의 교육 수요자들이 대부분 취업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에서는 교육과정 자체가 관념적이고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대학은 본교의 실상과 미래 사회에 적합한 발전 방향을 교육중심 대학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교육중심 대학이 될 경우 대학의 아카데

미즘, 즉 교수의 연구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는 대학의 특성화를 교육자 위주로 생각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견해이다. 교육중심 대학의 경우 학부는 실용성과 현장성을 지향하는 교육중심으로, 그리고 대학원은 연구 중심으로 이원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의 연구 활동은 그 노력 여하에 따라 연구중심 대학이든 교육중심 대학이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연구중심 대학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학의 학생 입장을 외면하고 대외적 이미지나 교육자의 입장만 고려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본교가 발전 방향으로 교육중심 대학을 표방한다는 것은 교육 내용이 실용적이고 산학협동적이며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본 대학은 1차적으로는 교육중심 대학으로서 적합한 학사조직과 학점구조의 틀을 학부제의 구성 등과 같이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 즉, 연구중심 학부제의 단점을 보완하여 교양학부와 전공학부를 근간으로 하는 실용적 학부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 교육중심 교육의 특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다만 학문 자체가 실용성이 적은 학과의 경우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대학 전체의 교육목표와 하부 교육단위의 교육목표 간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하면서 일정한 교양교육의 강화나 해당학과의 창의적 적응 노력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중심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기 위해 다른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전문화 전공제와 교양학사제 및 현장연수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도시형 정보 캠퍼스 건설이다. 교외의 넓은 지역에 산재한 단층형 캠퍼스가 지금까지의 기본모델이었다면, 교통이 편리하고 정보문화의 중심이 될 만한 도심 지역에 녹지 공간과 고층화된 건물들 속에 첨단 정보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한 도시형 캠퍼스도 미래 대학의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도시형 정보 캠퍼스를 지향하면서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 대학에서는 12층 규모의 종합정보관을 건설하고 있다. 그 속에 갖출 첨단적인 장비와 시설은 이미 우리 대학에 구축되어 있는 전산정보망과 함께 우리 대학과 지구촌을 연결시켜 정보통신교육 및 학술연구의 핵심 두뇌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래형 교육으로 소개되고 있는 재택수업, 멀티미디어 원격교육, 화상회의, 전자도서관, 교육매체 제작 등이 정보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역사회에도 개방함으로써 우리 대학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의 정보 획득 및 운영의 중심축이 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개발이다. 누구나 인정하다시피 앞으로 대학 발전의 요체는 대학 특성화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이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근의 논의에 따라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을 수용하고 정보화·국제화를 추진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학간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변화도 대학교육의 외형적 개혁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이며, 그 형태도 특징 없는 보편적 변화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학 특성화의 대안은 결국 교육

의 내실, 즉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차별화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특성화는 교육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개발의 주체는 교육자인 교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특성화는 학교 차원의 일률적인 방안이 있을 수 없으며, 각 학과 교수들의 창의적인 개발 노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발전할 수 있는 학과나 학부는 특성화되어 더욱 뻗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학과나 학부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신사고적 발상과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은 그러한 노력들을 추동하고 지원하면서 학사조직이나 학점구조 등의 행정적 차원에서 최대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대학은 학사조직 분야에서 실용적 학부제를 지향하여 학과 통합과 학부제의 추세를 수용함과 동시에, 실기 위주의 교육이 필수적인 학과에 한하여 더욱 전문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현 학과를 세부전공으로 분리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화 전공제를 도입하려고 한다. 또한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자유를 부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보다 심화된 전공교육이 가능한 교육체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넷째, 공부하는 대학으로의 발전이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교육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러한 외형적·내면적 골격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교육 소비자인 학생들의 능력별 성취동기를 고취시키는 일만 남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면학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단히 새삼스런 말이지만, 본교는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고 나면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려고 한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능력을 학생들이 차분히 습득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면학정신과 학습풍토가 가장 중요한 환경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학부별 모집으로 교양학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능력별로 전공을 선택하게 하며,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수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을 실시하고, 실질적인 지도교수제를 중심으로 한 학생 지도의 강화 및 학점 관리의 철저화를 통하여 보다 충실한 전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외국어와 컴퓨터 능력을 졸업요건화 하기 위한 정보교육과 외국어교육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복수전공제를 도입하되 졸업요건을 보다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총괄적으로 본교는 산업 연관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교육중심 대학을 표방하고, 고층형 캠퍼스와 첨단기기 및 교육 시스템을 갖춘 도시형 정보 캠퍼스를 구축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성화되고 내실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사회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조건이 비록 크게 좋지 않다 하더라도 입지, 교수진, 총장 이하 전 구성원의 정열이라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대학은 지금 현재보다는 내일이 있는 대학,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젊은 대학으로 인식되고 싶다.